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성격특성, 인지적 통제와 위험행동의 관계

박영신*

초 록

대학생은 과도한 흡연이나 폭음, 도박하기, 위험한 성관계 같은 여러 가지 위험행동을 많이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성격특성과 인지적 통제가 대학생의 위험행동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성격특성을 통제했을 때 인지적 통제가 위험행동을 예측하는지를 성별에 따라 검증하였다. D광역시 소재 K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에서 남학생 57명과 여학생 60명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성격특성으로 감각추구와 충동성을 Arnett 감각추구척도와 Barratt 충동성검사로 측정하였고, 인지적 통제는 컴퓨터로 실시한 Eriksen 수반자극과제에서 산출된 수반자극방해효과와 갈등적응효과로 측정하였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위험행동에 참여하였던 정도를 측정하였다. 위험행동은 일상생활관련위험행동, 지위관련위험행동, 위법관련위험행동과 물질관련위험행동으로 구분되었고 전반적으로 위험행동은 낮은 편이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감각추구는 위험행동과 관계를 보여서 감각추구를 많이 할수록 대학생은 위험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수반자극방해효과와 갈등적응효과는 여학생의 위험행동과 관계가 없었지만 갈등적응효과는 남학생의 일상생활관련 위험행동과 관계가 있었다. 남학생은 갈등적응효과가 작을수록 위험행동을 더 많이 보였고, 감각추구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갈등적응효과는 남학생의 위험행동을 의미있게 예측하였다. 이 연구는 인지적 통제가 남학생의 위험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이며, 갈등적응효과가 수반자극방해효과보다 위험행동을 더 잘 예측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위험행동, 인지적 통제, 갈등적응효과, 수반자극방해효과, 감각추구

*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교신저자, yoshpark@knu.ac.kr

I. 서 론

위험행동이란 잠정적으로 손실이나 부정적 결과를 내포하고 있지만 지각된 이득이나 긍정적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이다(Gullone & Moore, 2000). 위험행동은 청소년기 초기와 중기에 많이 나타나지만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에서도 많이 나타난다(한상철, 1998; Arnett, 1998). 대학생들은 주로 물질사용, 성관계나 운전하기에서 위험행동을 많이 보였다. 흡연이나 음주를 과도하게 하거나 불법약물을 사용하였고,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거나 낚선 사람이나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음주한 상태에서 또는 과속으로 운전을 하였다(Bradley & Wildman, 2002; Greene, Krmar, Walters, Rubin & Hale, 2000; Rolison & Scherman, 2003; Zuckerman & Kuhlman, 2000). 우리나라 대학생은 폭력이나 성관계와 관련된 위험행동은 적게 보였지만 흡연이나 음주와 관련된 위험행동은 미국 대학생보다 훨씬 더 많이 보였다(이중정, 이충원, 우병욱, 2003). 이러한 대학생의 위험행동은 어린 청소년의 위험행동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위험행동을 일으키는 요인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하여야 대학생의 위험행동을 예방할 수 있고, 위험행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행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별에 따른 차이이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험행동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150개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여러 가지 위험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Byrnes, Miller & Schafer, 1999). 남학생은 약물사용, 위험한 운전, 위험한 성관계 같은 위험행동을 여학생보다 더 많이 보였고(Gullone, Moore, Moss & Boyd, 2000; Turner & McClure, 2003)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양돈규, 2001; 이중정 등, 2003). 이렇게 성별에 따라 위험행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위험행동과 관계되는 요인들, 예를 들어 성격특성이나 인지적 능력도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험행동은 성격특성, 인지적 능력이나 또래압력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위험행동은 건강을 해치거나 목숨을 잃는 것 같은 손실이나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지만 동시에 쾌감, 지루함이나 따분함의 해소 같은 이득이나 긍정적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위험행동의 서로 다른 결과와 관련되는 개인의 성격특성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감각추구, 충동성과 행동활성화체계 같이 위험행동의 긍정

적 결과를 추구하게 하는 성격특성은 위험행동을 촉진할 것이고, 의도적 통제나 행동 억제체계 같이 위험행동의 부정적 결과를 피하게 하는 성격특성은 위험행동을 억제할 것이다.

성격특성과 마찬가지로 인지적 능력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이 주목을 받아온 인지적 능력은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다. 실행기능은 판단하기, 충동통제, 자기조절과 계획하기 같은 목표지향적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이며(Miller & Cohen, 2001), 주요한 구성요소는 여러 과제나 정신과정 사이로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 정보를 저장하고 갱신하는 작업기억, 주도적이거나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억제적 통제이다(Miyake, Friedman, Emerson, Witzki & Howerter, 2000). 이러한 실행기능이 낮은 대학생이 과도한 흡연이나 과음, 약물사용, 위험한 성행동, 과속주행을 더 많이 하였고(Magar, Phillips & Hoise, 2008; Parada, Corral, Mota, Crego, Rodriguez-Holguín & Cadaveira, 2012), 감각추구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실행기능이 위험행동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쳤다(Pharo, Sim, Graham, Gross & Hayne, 2011). 그렇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실행기능과 위험행동이 관계가 없거나(Romer, Betancourt, Giannetta, Brodsky, Farah & Hurt, 2009) 실행기능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폭음이나 과음을 더 많이 하였다(Gil-Hernandez & Garcia-Moreno, 2016). 이처럼 실행기능과 위험행동의 관계는 일관성이 없고, 위험행동에 대한 실행기능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환능력, 작업기억과 억제적 통제 같은 실행기능과 위험행동의 관계가 계속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위험행동과 관계되는 새로운 인지적 요인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

II. 이론적 배경

1. 성격특성과 위험행동

위험행동과 관계에서 많이 연구되어 온 성격특성은 감각추구와 충동성이다. 감각추구란 다양하고, 새롭고, 복잡한 감각과 경험에 대한 요구이며 이런 경험을 위해서 신

체적, 사회적, 법적 및 재정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성을 말한다(Zuckerman, 1994). 감각추구는 대학생의 위험행동과 관계가 있어서 감각추구를 많이 할수록 대학생은 성행동, 운전하기, 물질사용 같은 여러 영역에서 위험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Arnett, 1998; Bradley & Wildman, 2002; Duangpatra, Bradley & Glendon, 2009; Greene et al., 2000; Pharo et al., 2011; Rolison & Scherman, 2003; Wagner, 2001; Zuckerman & Kuhlman, 2000). 우리나라 대학생도 감각추구를 많이 할수록 위험행동을 더 많이 보였지만, 적응과 건강에 긍정적 기능을 하는 낙관성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을 덜 보였다(양돈규, 2001).

충동성이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서둘러서 결정을 내리는 경향성을 말한다(Eysenck & Eysenck, 1977). 충동성은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험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충동성이 높을수록 청소년과 대학생은 음주, 흡연, 도박, 싸움하기와 약물사용,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하였다(강현규, 김현우, 백기청, 이경규, 임명호, 2002; 신지원, 양난미, 2014; Romer, Betancourt, Brodsky, Giannetta, Yang & Hurt, 2011; Romer et al., 2009). 그렇지만 충동성에 따른 위험행동의 차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Stanford, Greve, Boudreaux, Mathias & Brumbelow, 1996).

2. 인지적 통제와 위험행동

인지적 통제는 도전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목표에 맞추어 사고와 행동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Botvinick, Carter, Braver, Barch & Cohen, 2001). 인지적 통제의 연구는 갈등이 내포된 상황에서 사고나 행동이 어떻게 통제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갈등관리이론(conflict monitoring theory)(Botvinick et al., 2001)에서는 사람이 환경의 요구에 따라 생각이나 행동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과음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표와 과음하려는 생각이 갈등을 일으킬 때 인지적 통제가 잘 발달된 사람은 이러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행동을 덜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스트룹효과와 수반자극방해효과

인지적 통제는 스트룹과제나 Eriksen 수반자극과제(Flanker task)(Eriksen & Eriksen, 1974)에서 관찰할 수 있다. 스트룹과제에서 참가자는 여러 색깔로 인쇄된 색깔단어의 색깔에 반응해야 하는데 때로는 색깔과 색깔단어가 일치하고(예, 파랑색 잉크로 인쇄된 ‘파랑’) 때로는 불일치한다(예, 빨강색 잉크로 인쇄된 ‘파랑’). 일반적으로 색깔과 색깔단어가 일치하는 조건(Congruent Condition: C)보다 불일치하는 조건(Incongruent Condition: I)에서 반응이 더 느리고 더 부정확한데 이를 스트룹효과 Stroop effect)라고 한다. 스트룹효과는 불일치 조건과 일치조건의 반응시간의 차이(I-C)로 산출한다. 스트룹효과가 클수록 불일치조건에서 갈등이 잘 처리되지 못했으며, 인지적 통제가 덜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수반자극과제에서는 참가자가 주변의 수반자극과 같이 제시되는 중앙에 있는 목표 자극의 방향에 대해 반응한다. 때로는 목표자극과 수반자극의 방향이 일치하고(예, <<<<<), 때로는 불일치한다(예, <<<><). 목표자극과 수반자극의 방향이 일치하는 조건(Congruent Condition: C)보다 불일치하는 조건(Incongruent Condition: I)에서 반응이 더 느리고 더 부정확한데 이를 수반자극방해효과(Flanker interference effect)라고 한다. 수반자극방해효과가 클수록 불일치조건에서 갈등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못했으며, 인지적 통제가 덜 효율적임을 나타낸다.

이처럼 스트룹효과와 수반자극방해효과는 서로 다른 과제에서 측정되지만 사실은 동일한 효과이다. 스트룹효과나 수반자극방해효과와 위험행동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검토되었다(Gil-Hernandez & Garcia-Moreno, 2016; Gustavson, Stallings, Corley, Miyake, Hewitt & Friedman, 2017; Peeters, Janssen, Monshouwer, Boendermaker, Pronk, Wiers & Vollebergh, 2015; Pharo et al., 2011; Romer et al., 2009; Youssef, Whittle, Allen, Lubman, Simmons & Yücel, 2016). 그러나 위험행동과 관계를 발견하거나(Peeters et al., 2015) 발견하지 못한 연구(Gil-Hernandez & Garcia-Moreno, 2016; Romer et al., 2009)가 혼재되어 있다.

2) 갈등적응효과

갈등적응효과는 스트룹효과나 수반자극방해효과가 현재 시행에 선행하는 이전 시행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나타낸다. 선행시행이 일치시행일 때보다 선행시행이 불일치시행일 때 스트룹효과나 수반자극방해효과가 감소하는데 이를 갈등적응효과(conflict adaptation effect)라고 한다(Egner, 2007; Gratton, Coles & Donchin, 1992). 갈등관리이론에 의하면 일치시행이 선행할 때에는 선행하는 시행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적 통제의 수준에 변화가 없어서 현재 시행의 갈등처리가 촉진되지 못하는데 반해서 불일치시행이 선행할 때에는 선행하는 시행의 갈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지적 통제수준이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된 인지적 통제가 현재 시행의 갈등처리를 촉진하기 때문에 갈등적응효과가 발생한다(Botvinick et al., 2001; Egner, 2007; Kerns, Cohen, MacDonald, Cho, Stenger & Carter, 2004). 따라서 갈등적응효과는 선행시행이 일치시행인 조건과 불일치시행인 조건에서의 스트룹효과나 수반자극방해효과의 차이로 산출한다($C(I-C)-I(I-C)$). 스트룹효과나 수반자극효과와 달리 갈등적응효과가 클수록 인지적 통제가 더 효율적임을 나타낸다.

스트룹효과나 수반자극방해효과에는 인지적 통제 뿐 아니라 그 밖의 요소(예, 반응억제의 정도)가 포함되는데 반해서 갈등적응효과에는 인지적 통제만이 포함된다. 따라서 스트룹효과나 수반자극방해효과보다 갈등적응효과가 인지적 통제를 더 정확하게 측정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갈등관리이론의 관점에서 인지적 통제와 위험행동의 관계가 연구된 적이 없다. 따라서 갈등적응효과, 이제까지 많이 연구되었던 스트룹효과와 위험행동의 관계를 비교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첫째, 성격특성, 인지적 통제와 위험행동이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성격특성으로 감각추구와 충동성이 위험행동과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Eriksen 수반자극과제에서 산출된 수반자극방해효과와 갈등적응효과가 각각 위험행동과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둘째, 어느 효과가 위험행동과 더 큰 관계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효과와 위험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셋

제, 감각추구나 충동성 같이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인지적 통제가 위험행동을 의미있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았다.

II. 연구방법

1. 참가자

D광역시의 K대학교에 재학하는 117명의 대학생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남학생은 57명, 여학생은 60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17세(표준편차 2.23; 17.33세~26.33세)이었고 남학생은 21.00세(표준편차 2.05), 여학생은 21.33세(표준편차 2.39)였다. 이 가운데에서 수반자극과제에서 산출된 수반자극방해효과나 갈등적응효과가 평균에서 +3 표준편차 이상으로서 극단적 반응을 보였던 남학생 2명을 제외하고 남학생 55명과 여학생 60명 총 115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2. 연구도구

1) 성격질문지

성격특성으로는 감각추구와 충동성을 측정하였다. 감각추구는 Arnett(1994)가 제작한 척도를 전덕희(2002)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9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4점)의 4점 척도이다. '나를 놀라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영화가 좋다', '나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도시를 돌아다녀 보고 싶다' 등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신뢰도 계수는 전덕희 연구(2002)에서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충동성은 Barratt 충동성검사-11(Patton, Stanford & Barratt, 1995)을 허심양, 오주용과 김지혜(2012)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충동성 8문항, 운동충동성 11문항과 무계획충동성 11문항으로

구성된다. 인지충동성은 외부나 내부의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한 반응속도의 빠름을 의미하고(예, 나는 취미가 자주 바뀐다), 운동충동성은 생각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며(예, 나는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무계획충동성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예견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예, 나는 미래보다 현재에 더 관심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4점)의 4점 척도이다. 신뢰도 계수는 허심양 등의 연구(2012)에서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74였다.

2) 인지적 통제 과제

인지적 통제는 Eriksen 수반자극과제로 측정하였다. 컴퓨터 화면 중앙에 다섯 개의 화살표(예, $\leftarrow\leftarrow\leftarrow\leftarrow\leftarrow$)가 나란히 제시되는데 참가자는 좌우에 있는 수반자극을 무시하고 가운데 있는 표적자극의 방향에 따라 반응하였다. 표적자극의 방향이 왼쪽일 때에는 컴퓨터 자판 왼쪽에 있는 Z키, 표적자극의 방향이 오른쪽일 때에는 M키를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눌러서 반응하였다. 주변 수반자극의 방향은 때로는 표적자극과 일치하였고(예, $\leftarrow\leftarrow\leftarrow\leftarrow\leftarrow$) 때로는 일치하지 않았다(예, $\leftarrow\leftarrow\rightarrow\leftarrow\leftarrow$). 실험은 전체 321시행이었고 이 중에서 표적자극과 수반자극의 방향이 일치하는 조건(Congruent condition; C)이 161시행이었고, 표적자극과 수반자극의 방향이 불일치하는 조건(Incongruent condition: I)이 160시행이었다. 참가자가 과제에 익숙해지도록 30회 연습시행을 먼저 실시하였다. 참가자가 실험절차를 완전히 이해하면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반자극방해효과는 불일치시행의 반응시간과 일치시행의 반응시간의 차이(I-C)로 산출하였다. 갈등적응효과는 일치시행이 선행하는 조건과 불일치시행이 선행하는 조건의 수반자극방해효과의 차이로 산출하였다(CI-CC)-(II-IC)(Egner, 2011).

3) 위험행동질문지

위험행동질문지는 대학생의 위험행동을 측정하는 양돈규(2001)와 김훈희와 황영신(2014)의 척도를 사용하여 두 척도의 문항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폭음, 흡연, 술 마시고 운전하기, 커닝하기, 낯선 타인과 성관계하기, 타인의 물건 훔치기,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기, 공공시설이나

기물파괴하기, 타인폭행하기, 무면허 운전하기, 돈 내고 도박하기, 타인과 싸움하기, 무단결석하기, 불법약물사용하기, 가출하기, 등록금이나 기타 공과금을 유혹비로 쓰기가 포함되었다. 참가자는 각 문항에 해당하는 행동을 지난 1년 동안 몇 번 했는지를 전혀 없다(1점), 1~2번(2점), 3~4번(3점), 5~6번(4점), 7번 이상(5점)의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양돈규 연구(2001)에서 .88, 김훈희와 황영신 연구(2014)에서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1이었다.

성격특성이나 인지적 통제와 위험행동의 관계가 위험행동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위험행동을 묶기 위해서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세 문항(무면허 운전, 가출, 등록금을 유혹비로 쓰기)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서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음주운전하기, 질주하기, 컨닝하기, 기물파손하기, 낯선 사람과 성관계하기, 싸움하기의 여섯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그 외에 세 요인이 더 추출되어서 각 요인을 표 1과 같이 명명하였다. 일상적 위험행동이 전체 변량의 약 33%를 설명하였고, 나머지 세 요인은 약 9~12% 정도를 설명하였다.

표 1
위험행동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	고유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일상관련 위험행동	음주운전하기	4.21	32.39%	32.39%
	오토바이(자동차)타고 질주하기			
	시험에서 컨닝하기			
	공공시설이나 기물 파손하기			
	낯선 사람과 성관계하기			
지위관련 위험행동	타인과 싸움하기	1.56	11.99%	44.38%
	돈 내고 도박하기			
	타인의 물건훔치기			
위법관련 위험행동	무단결석하기	1.30	9.96%	54.35%
	타인폭행하기			
물질관련 위험행동	불법약물사용하기	1.13	8.70%	63.04%
	흡연하기			
	폭음하기			

3. 연구절차

실험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두 명의 여성연구자가 실시하였다.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실험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실험에 참가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게 개인정보를 묻는 문항, 위험행동척도, 감각추구척도와 충동성검사로 구성되는 질문지를 네이버 설문지로 전달하여 미리 응답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실험자는 참가자와 일정을 정하여 K대학교 내의 실험실을 방문하여 연구참가동의서를 작성한 후 개인별로 수반자극과제와 다른 연구목적을 위해서 ANT과제와 BART과제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세 과제가 실시되는 순서는 참가자 간에 역균형화하였다. 실험이 종료된 다음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커피쿠폰을 제공하였고 원할 때에는 실험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Win으로 분석되었다. 위험행동이나 위험행동과 관련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석을 성별에 따라 실시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라 각 연구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라 성격특성, 인지적 통제와 위험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성격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인지적 통제가 위험행동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

표 2에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 인지적 통제와 위험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성격특성 중에서 감각추구의 평균이 38.96이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

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2.28$, $df=114$, $p<.05$). 충동성의 평균은 70.70이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수반자극과제의 평균 정확률은 .97이었고, 인지적 통제의 지표인 수반자극방해효과의 평균은 59.13이었고 갈등적응효과의 평균은 11.74였다. 평균정확률, 수반자극방해효과와 갈등적응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위험행동의 평균은 20.25로 가능한 총점 80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점수 범위를 살펴보았을 때 최저점이 16점, 최고점이 50점이었고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이 63.4%,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이 36.6%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이 각각 20.59, 19.93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요인별 점수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2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 인지적 통제와 위험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학생	여학생	전체
성격특성	감각추구	40.52 (6.50)	37.50 (7.66)	38.96 (7.25)
	충동성	70.67 (6.01)	70.73 (5.57)	70.70 (5.76)
인지적 통제	수반자극방해효과	60.02 (16.30)	58.32 (20.04)	59.13 (18.31)
	갈등적응효과	11.04 (16.27)	12.39 (16.60)	11.74 (16.38)
위험행동	일상관련 위험행동	7.47 (2.68)	6.87 (1.27)	7.16 (2.09)
	지위관련 위험행동	4.43 (1.73)	4.78 (1.98)	4.61 (1.89)
	위법관련 위험행동	2.09 (.34)	2.05 (.22)	2.07 (.29)
	물질관련 위험행동	3.64 (2.32)	3.31 (1.74)	3.48 (2.05)
	기타	3.00 (.00)	3.00 (.00)	3.00 (.00)
	전체	20.59 (5.63)	19.93 (3.51)	20.25 (4.64)

2. 성격특성, 인지적 통제와 위험행동의 관계

성격특성, 인지적 통제와 위험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에 따라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에서 감각추구는 위험행동총점과 .50($p<.01$), 일상관련 위험행동과 .30($p<.05$), 물질관련 위험행동과 .65($p<.01$)의 높은 정적 상관

표 3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 인지적 통제와 위험행동의 상관관계

위험행동	남학생				여학생			
	감각 추구	충동성	수반자극 방해효과	갈등적응 효과	감각 추구	충동성	수반자극 방해효과	갈등적응 효과
일상관련	.30 [*]	-.01	-.10	-.35 ^{**}	.09	-.10	-.10	-.05
지위관련	.21	.12	-.07	-.10	.14	.00	-.13	.07
위법관련	.13	-.16	-.02	.01	-.04	.10	.01	.01
물질관련	.65 ^{**}	.28 [*]	-.16	-.18	.32 [*]	.28 [*]	-.03	.07
총 점	.50 ^{**}	.15	-.14	-.27 ⁺	.26 [*]	.11	-.13	.06

+ $p < .10$ * $p < .05$ ** $p < .01$

을 보였다. 충동성은 위험행동총점과 상관이 없었으나 물질관련 위험행동과 .28 ($p < .05$)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인지적 통제의 지표 중 갈등적응효과는 위험행동총점과 -.27 ($p < .10$), 일상관련 위험행동과 -.35($p < .01$)의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수반자극방해효과는 위험행동과 상관이 없었다. 여학생에서도 감각추구는 위험행동총점과 .26($p < .05$), 물질관련 위험행동과 .32($p < .05$)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충동성은 물질관련 위험행동과 .28($p < .05$)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인지적 통제의 두 지표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위험행동과 관련되는 성격특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어서 대학생의 위험행동은 감각추구나 충동성과 관계가 있었다. 즉, 감각추구를 많이 할수록 위험행동과 특히 물질관련 위험행동을 많이 보였으며, 또 충동적일수록 물질관련 위험행동을 많이 보였다. 위험행동과 관련되는 인지적 통제의 지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남학생의 위험행동은 갈등적응효과와 관계가 있었고, 여학생의 위험행동은 어느 효과와도 관계가 없었다.

3. 성격특성과 인지적 통제가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격특성과 인지적 통제가 남학생의 위험행동과 모두 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격특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인지적 통제가 위험행동을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위험행동총점을 준거변인으로 하여서 첫 번째 단계에서 감각추구를 투입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 갈등적응효과를 투입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감각추구는 위험행동총점의 24%를 예측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24$, $F=16.92$, $p<.01$). 두 번째 단계에서 감각추구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갈등적응효과는 위험행동총점의 2%를 추가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Delta R^2=.02$, $\Delta F=1.93$, $p=.17$). 즉, 갈등적응효과는 감각추구를 통제하였을 때 남학생의 위험행동총점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표 4

성격특성, 인지적 통제가 남학생의 위험행동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예측변인		B	SE B	β	R^2	ΔF
위험행동 전체	단계 1					
	감각추구	.43	.10	.51 **	.24 **	$F_{1,49}=16.92^{**}$
	단계 2					
	감각추구	.40	.10	.47 **	.26 **	$F_{1,48}=1.93$
	갈등적응효과	-.06	.04	-.17		
일상관련 위험행동	단계 1					
	감각추구	.12	.05	.30 *	.07 *	$F_{1,52}=4.94^{\#}$
	단계 2					
	감각추구	.10	.05	.24 *	.13 *	$F_{1,51}=4.55^{\#}$
	갈등적응효과	-.05	.02	-.28 *		

+ $p<.10$ * $p<.05$ ** $p<.01$

따라서 위험행동의 변량을 가장 많이 설명하였고, 갈등적응효과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일상관련 위험행동에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감각추구는 위험행동의 7%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30$, $p<.01$; $R^2=.07$, $F=4.94$, $p<.01$). 두 번째 단계에서 감각추구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갈등적응효과는 위험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을 뿐 아니라($\beta=.28$, $p<.01$), 예측력이 이전 단계보다 6% 더 증가하였다($\Delta R^2=.06$, $\Delta F=4.55$, $p<.05$). 즉, 갈등적응효과는 감각추구를 통제

하였을 때에도 남학생의 일상관련 위험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남학생이 감각추구를 많이 할수록 일상관련 위험행동을 더 많이 하지만, 인지적 통제가 발달하였을수록 일상관련 위험행동에 덜 개입함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11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특성, 인지적 통제와 위험행동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성격특성으로 감각추구와 충동성을 측정하였고 인지적 통제는 수반자극과제에서 산출된 수반자극방해효과와 갈등적응효과로 측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위험행동이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정도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특성과 위험행동은 관계가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Duangpatra et al., 2009; Pharo et al., 2011; Rolison & Scherman, 2003; Zuckerman & Kuhlman, 2000) 감각추구는 대학생의 위험행동총점과 관계가 있어서 감각추구가 청소년 초기와 중기 뿐 아니라 대학생의 위험행동에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특성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충동성은 위험행동총점과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의 위험행동에는 충동성보다 감각추구가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런 충동성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향성과 더불어 인지적 및 운동적 충동성도 측정하였는데 반해서 선행연구에서는 충동성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향성에 한정하거나(Stanford et al., 1996) 충동성에 감각추구를 포함하여 측정한데 기인하는 것 같다(Romer et al., 2009; Romer et al., 2011). 특히 물질관련위험행동이 감각추구나 충동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서 성별에 무관하게 새로운 감각이나 경험을 많이 추구하고, 미리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향성이 높은 대학생이 흡연이나 폭음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지적 통제는 남학생의 위험행동과 관계가 있었다. 남학생들은 인지적 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음주운전,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기, 낯선 사람과 성관계 하기, 타인과 싸우기 등으로 구성되는 일상관련 위험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이 결과는 성격특성, 연령과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에 실행기능이 낮은 13세~22세 청소년이

위험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밝힌 Pharo 등(201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실행기능이 중요한 것처럼(Khurana, Romer, Betancourt, Brodsky, Giannetta & Hurt, 2012; Romer et al., 2009; Youssef et al., 2016) 대학생의 위험행동에 인지적 통제가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인지적 통제는 모든 위험행동과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과도한 흡연이나 폭음 같은 물질관련 위험행동은 감각추구나 충동성과 강한 관계를 보였으나 인지적 통제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실행기능과 물질사용빈도나 물질의존성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던 Gustavson 등의 연구(2017)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위험행동의 유형에 따라서 인지적 통제의 영향이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여학생에서는 인지적 통제와 위험행동이 관계가 없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인지적 요인과 위험행동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런 결과가 본 연구에 참여한 여학생에 국한된 현상인지 또는 모든 여학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가 추후연구에서 재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지적 통제의 두 지표와 위험행동의 관계에 차이가 있었다. 수반자극방해효과와 갈등적응효과가 서로 $.48(p<.01)$ 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적응효과만이 남학생의 위험행동을 예측하였다. 갈등적응효과는 일상관련 위험행동에 포함되었던 여섯 가지 위험행동과 $-.24(p<.10)$ 에서 $-.39(p<.01)$ 의 의미있는 상관을 보였지만 수반자극방해효과는 어떤 위험행동과도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수반자극방해효과에는 인지적 통제 뿐 다른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스트룹효과와 위험행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상황들은 수반자극방해효과보다 갈등적응효과가 위험행동을 더 효율적으로 예측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아직 갈등적응효과와 위험행동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차이가 다른 위험행동이나 다른 발달단계에서도 발견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인지적 통제는 성격특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남학생의 위험행동을 예측하였다. 남학생의 일상관련 위험행동은 감각추구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갈등적응효과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상관의 정도는 각각 $.30$ 과 $-.35$ 로 유사하였다. 그렇지만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감각추구를 통제하였을 때에 갈등적응효과가 추가적인 예측력을 보여서

감각추구보다는 갈등적응효과가 남학생의 위험행동에 더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위험행동이 감각추구하고만 관계를 보였던 여학생의 결과와 대조가 된다. 남학생의 위험행동에는 인지적 통제가 중요하였지만 여학생의 위험행동에는 성격특성이 중요하였는데, 과연 인지적 통제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위험행동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재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의 논의점과 추후 연구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대학생도 위험행동을 많이 보였던 선행연구(Arnett, 1998)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위험행동을 많이 보이지 않았다. 무면허운전, 가출 등의 심각한 위험행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무단결석하기, 폭음하기, 과도한 흡연 등의 심각하지 않은 위험행동이 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양돈규(2001)나 김훈희, 황영신(2014) 연구에서도 비슷하였는데 성인기에 들어가면서 대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안정되고, 사회적 책임감이 더 증가하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했던 선행연구(양돈규, 2001; Arnett, 1998; Pharo et al., 2011; Zuckerman & Kuhlman, 2000)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험행동척도에 포함되었던 열여섯 가지 위험행동 중 어떤 행동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와 차이가 나는 이런 결과들은 크기가 작은 표본, 참가자의 특성, 또는 위험행동척도의 신뢰도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였을 수 있다. 참가자가 115명 정도였고, 참가자들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치관이 보수적인 집단에서 선발되었고, 위험행동척도의 신뢰도가 .70으로 양호하나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양한 수준의 위험행동을 폭넓게 표집하지 못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위험행동의 차이나 인지적 통제와 위험행동의 관계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여학생에서 인지적 통제와 위험행동의 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두 변인이 관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학생이 위험행동을 적게 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위험행동의 개인차가 큰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적 통제가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위험행동에 차이가 없었고, 여학생과 위험행동의 수준이 비슷했던 남학생에서는 인지적 통제의 영향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지적 요인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성별에 따라 인지적 요인과 위험행동의 관계가 차이가 있

는지,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위험행동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성별에 따라 성격요인과 인지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도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인지적 요인을 밝혔고, 성별에 따라 이 요인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대학생의 위험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대학생의 위험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현규, 김현우, 백기청, 이경규, 임명호 (2002). 천안지역 대학생의 흡연군과 비흡연군간 충동성, 우울 및 불안정도 비교연구. **신경정신의학**, 41(6), 1089-1098.
- 김훈희, 황영신 (2014). 대학생들의 발달자산, 스트레스 및 위험행동의 구조적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2(6), 625-635.
- 신지원, 양난미 (2014). 대학생의 충동성과 문제음주 사이의 관계: 음주동기와 예방행동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1831-1848.
- 양돈규 (2001). 위험행동에 대한 낙관성 및 감각추구성향의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9, 89-113.
- 이중정, 이충원, 우병욱 (2003). 대구광역시 일개 4년제 대학생의 건강위험행동조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9(2), 106-117.
- 전덕희 (2002). **청소년의 우울과 감각추구성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상철 (1998). 청소년기의 위험행동: 교우관계 및 가족역할 변화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5(3), 45-62.
- 허심양, 오주용, 김지혜 (2012). 한국판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769-782.
- Arnett, J. (1994).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2), 289-296.
- Arnett, J. (1998). Risk behavior and family role transition during the twent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3), 301-320.
- Botvinick, M. W., Carter, C. S., Braver, T. S., Barch, D. M., & Cohen, J. D. (2001). Conflict monitoring and cognitive control. *Psychological Review*, 108(3), 624-652.
- Bradley, G., & Wildman, K. (2002). Psychosocial predictors of emerging adults' risk and reckless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4), 253-265.
- Byrnes, J. P., Miller, D. C., & Schafer, W. D. (1999). Gender differences in risk

- taking: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5(3), 367-383.
- Duangpatra, K. N. K., Bradley, G. L., & Glendon, A. I. (2009). Variables affecting emerging adults' self-reported risk and reckless behavio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0(3), 283-309.
- Egner, T. (2007). Congruency sequence effects and cognitive control. *Cognitive, Affective, & Behavioral Neuroscience*, 7(4), 380-390.
- Egner, T. (2011). Right ventrolateral prefrontal cortex mediates individual differences in conflict-driven cognitive control.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3(12), 3903-3913.
- Eriksen, B. A., & Eriksen, C. W. (1974). Effects of noise letters upon the identification of a target letter in a non-search task. *Perception and Psychophysics*, 16(1), 143-149.
- Eysenck, S. B. G., & Eysenck, H. J. (1977). The place of impulsiveness in a dimensional system of personality descrip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6(1), 57-68.
- Gil-Hernandez, S., & Garcia-Moreno, L. M. (2016). Executive performance and dysexecutive symptoms in binge drinking adolescents. *Alcohol*, 51, 79-87.
- Gratton, G., Coles, M. G. H., & Donchin, E. (1992). Optimizing the use of information: Strategic control of activation of respons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21(4), 480-506.
- Greene, K., Krmar, M., Walters, L. H., Rubin, D. L., & Hale, J. L. (2000). Targeting adolescent risk-taking behaviors: The contributions of egocentrism and sensation-seeking. *Journal of Adolescence*, 23(4), 439-461.
- Gullone, E., & Moore, S. (2000). Adolescents risk-taking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Adolescence*, 23(4), 393-407.
- Gullone, E., Moore, S., Moss, S., & Boyd, C. (2000). The adolescent risk tak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2), 231-250.
- Gustavson, D. E., Stallings, M. C., Corley, R. P., Miyake, A., Hewitt, J. K., &

- Friedman, N. P. (2017). Executive functions and substance use: Relations in 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6*(2), 257-270.
- Kerns, J. G., Cohen, J. D., MacDonald, A. W., Cho, R. Y., Stenger, V. A., & Carter, C. S. (2004). Anterior cingulate conflict monitoring and adjustments in control. *Science, 303*, 1023-1026.
- Khurana, A., Romer, D., Betancourt, L., Brodsky, N. L., Giannetta, J. M., & Hurt, H. (2012). Early adolescent sexual debut: The mediating role of working memory ability, sensation seeking and impuls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8*(5), 1416-1428.
- Magar, E. C. E., Phillips, L. H., & Hoise, J. A. (2008). Self-regulation and risk-tak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 153-159.
- Miller, E. K., & Cohen, J. D. (2001). An integrative theory of prefrontal cortex function. *Annual Review of Neuroscience, 24*, 167-202.
- Miyake, A., Friedman, N. P., Emerson, M. J., Witzki, A. H., & Howerter, A. (2000). The unity and diversity of executive functions and their contributions to complex "Frontal Lobe" tasks: A latent variable analysis. *Cognitive Psychology, 41*(1), 49-100.
- Parada, M., Corral, M., Mota, N., Crego, A., Rodriguez-Holguín, S., & Cadaveira, A. (2012). Executive functioning and alcohol binge drinking in university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37*, 167-172.
- Patton, J. H., Stanford, M. S., & Barratt, E. S. (1995). Factor structure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6), 768-774.
- Peeters, M., Janssen, T., Monshouwer, K., Boendermaker, W., Pronk, T., Wiers, R., & Vollebergh, W. (2015). Weakness in executive functioning predict the initiating of adolescents' alcohol use.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16*, 139-146.
- Pharo, H., Sim, C., Graham, M., Gross, J., & Hayne, H. (2011). Risky business: Executive function, personality, and reckless behavior during adolescence

- and emerging adulthood. *Behavioral Neuroscience*, 125(6), 970-978.
- Rolison, M. R., & Scherman, A. (2003). College student risk-taking from three perspectives. *Adolescence*, 38(152), 689-704.
- Romer, D., Betancourt, L. M., Brodsky, N. L., Giannetta, J. M., Yang, & Hurt, H. (2011). Does adolescent risk taking imply weak executive function? a prospective study of relations between working memory performance, impulsivity, and risk taking in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Science*, 14(5), 1119-1133.
- Romer, D., Betancourt, L. M., Giannetta, J. M., Brodsky, N. L., Farah, M., & Hurt, H. (2009). Executive cognitive functions and impulsivity as correlates of risk taking and problem behavior in preadolescents. *Neuropsychologia*, 47(13), 2916-2926.
- Stanford, M. A., Greve, K. W., Boudreaux, J. K., Mathias, C. W., & Brumbelow, J. L. (1996). Impulsiveness and risk-taking behavior: Comparison of high-school and college students using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6), 1073-1075.
- Turner, C., & McClure (2003).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risk-taking behaviour as an explanation for high incidence of motor vehicle crashes as a driver in young males. *Injury Control and Safety Promotion*, 10(3), 123-130.
- Wagner, M. K. (2001). Behavior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bstance abuse and risk-taking, sensation-seeking, anxiety sensitivity, and self-reinforcement. *Addictive Behaviors*, 26(1), 115-120.
- Youssef, G. J., Whittle, S., Allen, N. B., Lubman, D. I., Simmons, J. G., & Yücel, M. (2016). Cognitive control as a moderator of temperamental motivations toward adolescent risk-tak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87(2), 395-404.
-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uckerman, M., & Kuhlman, D. M. (2000). Personality and risk-taking: Common biosocial factors. *Journal of Personality*, 68(6), 999-1029.

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cognitive control, and risk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Park, Young-shin*

Risk behaviors such as binge drinking, gambling and substance use occurs often among college student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cognitive control and risk behaviors were examined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Fifty seven male and 60 female students of K University in D city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tud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were assessed by means of Arnett's Sensation Seeking Scale and Barratt's Impulsivity Scale. Cognitive control was measured through the Flanker interference and conflict adaptation effects, which were assessed via the Eriksen Flanker task. Risk behaviors were assessed by the frequencies of risk behaviors in the past year. Regardless of gender, sensation seeking but not impulsivity was related to risk behaviors. The Flanker interference and conflict adaptation effects were not related to risk behaviors in females. However, the conflict adaptation effect was related to risk behaviors in males. Males displayed high levels of risk behaviors when they showed poor cognitive control. When sensation seeking was controlled, the conflict adaptation effect predicted males' risk behaviors. This study indicated that cognitive control is an important cognitive predictor of male college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risk behaviors and that the conflict adaptation effect predicted risk behaviors better than the Flanker interference effect.

Key Words: risk behavior, cognitive control, conflict adaptation effect,
Flanker interference effect, sensation seeking

투고일: 2017. 6. 12, 심사일: 2017. 9. 11, 심사완료일: 2017. 9. 26